



대학주보

의대생 전원복귀 후 수강신청 10%, 수업 거부?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서울】우리학교 의대생이 전원 복귀했지만, 예·본과 모두 수강신청률이 약 10%에 그치고 있다. 복귀는 했지만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지난달 28일까지 의대 복귀 시한을 설정했다. 하지만 학생 의견이 엇갈리자 복귀 마감일을 30일로 연장했다.

이에 의대생 전원이 복귀했으며, 의대 행정실 측은 지난 3일까지 수강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학생 요청으로 기간이 지난 6일로 연장됐다. 그럼에도 수강신청률은 약 10% 남짓한 상황이다.

의예과 1학년 전공 의학심화연구 1, 2학년 전공 의학심화연구3 수업을 담당하는 윤경식(의예과) 교수는 "수강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110명 강의에 10명 정도 수강 신청했고, 2~3명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4월까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수강하는 학생은 두세 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본과도 마찬가지다. 본과 1학년 전공 생리학 수업을 담당하는 조영욱(의예과) 교수 역시 "대략 110명 정원 수업인데 총 11명이 신청했다"며 "이 중 4명은 신청만 했을 뿐, 수업을 듣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수업 역시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본과 영역에서는 대략 10%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며 "학생은 보통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학년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원 실습을 제외한 대면 수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교수는 "병원 실습도 대부분 전공의가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의대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은 해당 학기를 유급 처리할 예정이다.

일부 대학도 학칙에 의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유급 절차를 밟고 있다. 연세대는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본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유급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대 의대는 학생 전원이 수업에 참여했으며 서울대 역시 모든 본과생이, 연세대는 고학년 절반 가량이 복귀했다.

노천극장서 다시만남봄 '경희랜드' 성황리에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국제】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노천극장 일대에서 봄맞이 행사 '2025 경희랜드'가 개최됐다.

올해 봄맞이 행사는 사색의광장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노천극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노천극장으로 향하는 오르막길과 주변 길목에 늘어선 벚꽃 나무 아래에서 진행됐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현장에는 ▲프로모션 부스 ▲푸드트럭 ▲학생 부스가 설치됐다.

학생들은 푸드트럭이 길게 늘어선 공간 맞은편에 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봄을 즐겼다. 총학생회가 마련한 주류 부스와 푸드트럭에서 사 온 음식들로 허기를 채우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흥날리는 벚꽃잎 사이 학과 점퍼나 봄옷을 입고 사진



올해 행사는 사색의광장 공사 진행으로 인해 노천극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원희재 기자)

을 찍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김가은(전자공학 2023) 씨는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맞물려 이번 행사를 통해 봄을 만끽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응용과학대학관 옆 오르막길 한쪽에는 자유롭게 분필로 아스팔트 바닥을 꾸밀 수 있는 '분필존'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바닥에 저마다 자신의 이름, 소속 동아리나 학과를 적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권준원(환경

학 및 환경공학)씨는 "노천극장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노천극장 입구에는 다양한 학생 부스가 마련됐다. 그중 가장 인기를 끈 부스는 소개팅 부스 '히든(Hidden)'이었다. 연락처와 SNS 정보를 적으면 새로운 인연을 연결해준다. 타 부스에 참여해 3개의 스탬프를 받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부스를 방문한 한 학생은

수줍은 표정으로 연락처를 적기도 했다.

저녁 7시에는 노천극장 무대에서 '벚꽃 영화제'도 열렸다. 이틀간 영화 '너의 결혼식'과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상영됐다. 학생회는 별도 부스에서 관람객을 위해 팝콘을 제공했다. 송시안(골프산업학 2023) 씨는 "벚꽃이 핀 야외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특별한 분위기와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개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주은(전자공학 2023) 씨는 "작년 행사에 참여했을 때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고 더욱 다채로운 색깔의 행사인 것 같다"며 "내년에도 열린다면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건우(원자력공학 2021) 씨도 "그늘진 곳이 별로 없는 사색의광장보다 노천극장이 선선하고 여유로운 것 같아 더 좋았다"고 말했다.

2 종합

창 전환 · 이중창 · 캡처 제한, 온라인 시험 보안 고도화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오는 1학기 중간고사와 상시 진행 퀴즈에 비대면 시험 보안 전용 브라우저 'Trust Lock'이 도입된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비대면 온라인 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보안 전용 브라우저를 도입하게 됐다. 다만 해당 브라우저는 필수가 아닌, 교수 재량에 따른다.

주요 기능은 ▲시험 화면 전체 화면으로 자동 전환 ▲브라우저 메뉴, 도구, 옵션 기능 제한 ▲화면공유, 캡처 및 녹화, 인쇄, 이중창 제한 ▲마우스 우클릭 제한 ▲복사 및 붙여넣기 등 단축키 제한이다.

교수학습개발원은 온라인 강좌



비대면 시험 보안 전용 브라우저를 적용했을 시의 화면이다.

(사진=교수학습개발원 제공)

강의평가에서 '다른 인터넷 창 또는 외부 프로그램 접속 방지가 필요하다'는 학생 의견을 파악했다. 이에 'e-Campus 만족도 조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험 보안과 관련한 교수 요청을 반영해 이 브라우저를 개발했다.

비대면 시험 보안 전용 브라우저

는 PC 전용 브라우저이기에 태블릿, 핸드폰 등으로는 시험 접속이 불가능하다. 학생들은 e-Campus 공지사항 안내글에 첨부된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개인 PC에 설치할 수 있다.

비대면 강의 '공간과 권력으로 보는 세계'를 강의하는 교수학습개발

원장 지상현(지리학) 교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제를 복사-붙여넣기 해 답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시스템을 활용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브라우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 교수는 이번 1학기 중 중간고사부터 브라우저를 사용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강의 '비만의 사회학'을 강의하는 박승준(의예과) 교수는 "시험 전용 브라우저가 나오게 되어 반갑다"며 "해당 브라우저가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중간고사부터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소희(연극영화학 2024) 씨는 "교수님의 경고만으로는 커닝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느껴, 평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수학습개발원은 보안 브라우저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시로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
- ◎ 유엔평화학 관련 유수의 석학으로 이루어진 교수진(Ram Cnaan, 오준 등)
- ◎ 다양한 장학제도(전액, 성적, 기숙장학 제금)
- ◎ 서울캠퍼스와 광릉캠퍼스에서 수업 진행

- 모집과정 : 석사과정 (정치학석사 및 평화학석사)
 - 모집전공 : 국제평화, 유엔평화학, 평화안보정책
 - 전형방법 : 면접
 - 원서접수기간 : 4월 14일 ~ 7월 21일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ip.khu.ac.kr> (admission참조)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 이메일 gi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9

경영대 전공 수업 갑작스런 대면 전환 통보 수강철회기간 지나 결정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서울】 비대면 녹화 강의로 진행되던 경영대 전공 수업 '의사결정모형및분석' 과목이 커리큘럼 진행 중에 전면 대면으로 전환돼 수강생 사이 불만이 제기됐다. 비대면 수업을 위해선 사전에 교수학습개발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수업은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강 한 달째인 지난 3일, '의사결정모형및분석'을 담당하는 김재경(경영학) 교수는 해당 수업 방식이 대면으로 전환됐다고 수강생에 공지했다. 갑작스러운 강의 방식 전환에 일부 학생은 불만을 드러냈다. 수강생 A 씨는 "월, 수 공강을 만들어 일정관리가 어려워졌다"며 아쉬워했다. 우리학교 원격 수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업의 대면·비대면 여부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해당 수업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 비대면 수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강의계획서에는 '대면 + 비대면 병행'이라 언급돼 있지만, 예정된 오프라인 수업은 총 2회였다. 이 수업은 작년에도 수업 시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결정이 수강학점 철회 기

간인 3월 둘째 주 이후에 이뤄졌기에 불만이 제기됐다. 경영대 행정실은 의사결정모형및분석 강의가 비대면으로 개설된 사실을 3월 말에 인지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강좌이기에, 경영대 행정실은 김 교수에게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요청했고, 강의는 지난달 3일 공지를 통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다. 해당 수업의 온라인 여부가 뒤늦게 확인된 이유에 대해 경영대 행정실 측은 들을 수 없었다.

수업 방식 전환 후 김 교수는 지난 7일 학생들과 강의 방식을 논의했다. 이에 온라인 출석을 기본으로 하되,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할 경우 추가 점수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수강생 반응은 다양했다. 수강생 B 씨는 "통학 시간이 왕복 3시간이라 출석이 걱정됐는데, 교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다행"이라며 "그럼에도 학교가 이 상황을 더 빨리 인지하고 공지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수강생 C 씨는 "학교나 교수님 측에서 실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수강생 D씨는 "오프라인 수업 출석이 추가 점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출석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예산팀, “등록금 의존율, 유지 혹은 하락 전망”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2025학년도부터 우리학교 등록금이 5.1% 인상됐다. 국내 사립대보다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보이는 우리학교가 등록금 인상 이후 변화할 의존율에 대해 예산팀과 이야기를 나눴다. 예산팀은 등록금 의존율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2023학년도 결산 기준 우리학교 등록금 의존율은 61.2%다. 국내 사립대 190곳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 50.1%보다 약 10%p 정도 높다. 각 대학의 정보 공시에 따르면 서울 주요 8개 사립대(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등록금 의존율 평균은 52.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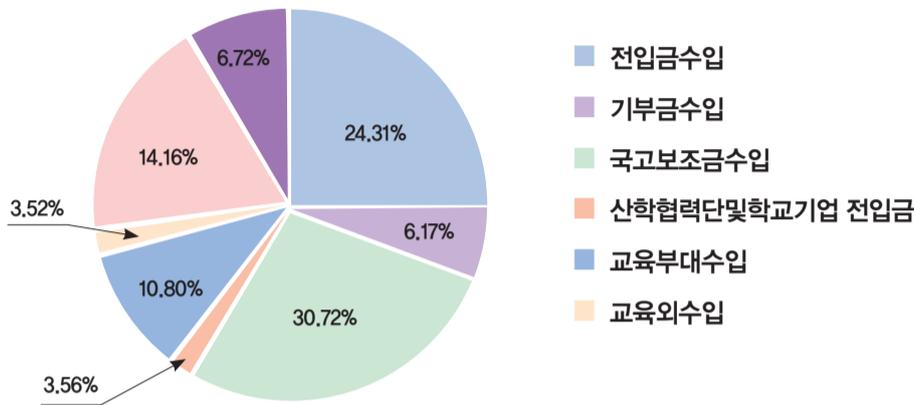
등록금 의존율이란 한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의 수입원이 등록금으로 편중됐다는 뜻이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지면 재정 불안정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등록금 수입은 학생 수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학령 인구 감소, 대학 인지도 하락에 따라 등록금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비등록금 수입으로 등록금 의존율 유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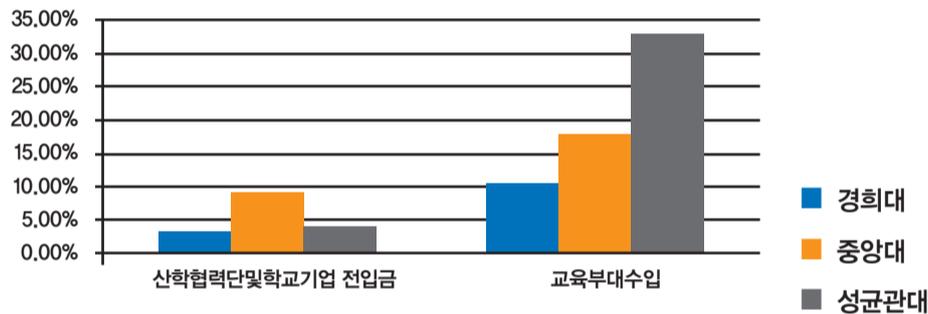
예산팀은 올해 비등록금 수입 중 전입 및 기부 수입이 증가해 등록금 의존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등록금 수입 중 ‘전입 및 기부 수입’은 ▲전입금 수입 ▲기부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산학협력단 및 학교 기업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과 ‘전입금 수입’, ‘기부금 수입’이 증가한다.

우리학교 비등록금 수입 항목별 비중



경희대, 중앙대, 성균관대 비등록금 수입 항목별 비중 비교



예산팀 김도균 팀장은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BK21, LINC3.0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 사업이 전개되면 우리학교는 모두 참가한다”며 “국고보조금을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024년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성과 부문 A등급을 받아 132.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대학주보 1735호/2025.01.22.) 또한, 2024년도 창업교육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창업교육 우수대학 선정/대학주보 1731호/2024.11.06.)

전체 비등록금 수입의 24.3%를 차지해 ‘국고보조금 수입’ 다음으로 비중을 가지는 ‘전입금 수입’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예산팀은 그 이유로 “우리학교 법인과 부속 병원 전입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아직 2024학년도 예·결산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부금 수입은 작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2023학년도 예·결산안에 따르면 기부금 수입은 재작년 대비 31억 원 증가했다.

김 팀장은 “아직 2024학년도 예·결산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부금 수입은 작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2023학년도 예·결산안에 따르면 기부금 수입은 재작년 대비 31억 원 증가했다.

기부금 수입 증가에 대외협력처 송혜경 부처장은 “동문 교류 활성화와 잠재 기부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부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 교육부대수입 약세

비등록금 수입원 증가로 등록금 의존율의 증가는 없을 것이란 예산팀의 입장에도 비등록금 수입의 취약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학교 비등록금 수입은 ‘전입금 및 기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비등록금 수입의 64.7%를 전입금 및 기부 수입이 차지한다. 한 항목

이 전체 비등록금 수입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비등록금 수입원 중 ‘산학협력단 및 학교 기업 전입금’ 항목이 약세다. 우리학교 최근 5년 평균 등록금 수입과 학생 수(약 2,969억 원/25,960명)가 비슷한 성균관대(2,784억 원/19,487명), 중앙대(2,619억 원/24,014명)와 비교·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예·결산안에서 우리학교 산학협력단 및 학교 기업 전입금 수입은 87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성균관대는 약 140억 원, 중앙대는 135억 원이다.

산학협력단 및 학교 기업 전입금은 산학협력단전입금과 학교 기업 전입금으로 나뉜다.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김지석 회계파트장은 “우리학교 학교 기업 전입금이 타 학교 대비 현저히 낮아 해당 분야 수입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87억 원 중 85억 원이 산학협력단전입금이다.

김 파트장은 산학협력단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산학협력 및 교수연구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파트장은 “교수님이 연구보다 본인이 맡은 행정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라며 “서면으로 처리하던 행정 절차를 데이터화하는 ‘페이퍼리스’ 사업과, 자료 검색을 쉽게 하는 ‘원클릭 서비스’ 등 행정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학교는 성균관대, 중앙대와 비교해 비등록금 수입 중 ‘교육부대수입’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약 10%대로 낮다. 이는 중앙대 비등록금 수입의 17.9%, 성균관대 비등록금 수입의 33.2%를 차지한다. 이 중 성균관대는 교육부대수입으로 약 1150억 원을 창출했다.

예산팀은 “성균관대를 비롯한 교육부대수입이 큰 대학은 대부분 큰 병원을 가지고 있다”며 “경희의료원의 수익은 메이저 대학병원에 비해 작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4 종합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확운위 인준돼, 중운위는 참여 불가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 신입생으로 구성된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인준이 확정됐다. 다만 회칙상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참여는 여전히 제한된다.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측은 총학생회칙 개정 건의를 통해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확운위 인준은 지난 3일 열린 제13차 중운위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결정됐다. 관련 근거는 총학생회칙 제 41조 2항 '단위학생회가 학생회 체계를 정상화할 의지와 대책이 있으며, 구성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중운위원 1/2 이상의 인준을 거쳐 확운위원으로 인정한다'에 따랐다.

그러나 총학생회칙 제51조 1항

에 의거, 중운위 참여가 불가한 점은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박병준(국제학 2017)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은 모든 학부 및 단과대학 학생회칙의 상위 회칙이며, 총학생회칙을 위배하는 회칙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가장 먼저 적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총학생회 및 중운위의 결정에 따라 중운위 참여가 가능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 제13차 중운위 회의 내용에 따르면 총학생회 측에서 "자유전공학부는 예외적으로 1학년이 입학 후, 3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발언이 있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내년 자유전공학부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남게 될지, 학생회장으로 출마하는 학생이 있을지는 현재로서 아예 알 수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의 중운위 인준은 확정됐지만, 확운위는 제한된다. (사진=원희재 기자)

가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의 경우 내년 총학 및 중운위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운위 참석이 제한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는 총학 공식 링

크트리에 게시되는 회의록을 통해 중운위 회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 조서윤(자유전공학 2025) 부회장은 "혹여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총학생회 측에 정

식으로 요청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자유전공학부 이준석(자유전공학 2025) 회장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학생 권익을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는 중운위 참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총학생회칙 하에 인정되는 총선거와 보궐선거에는 총학생회칙 제187조에 따라 2학기 이상 등록해야만 학생회에 출마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는 2학년엔 타 학과 소속이 되는 학부 특성상 신입생만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관련 회칙 개정을 공식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앞으로의 자유전공학부의 1학년도 예외를 인정받아 정식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말했다.

탄핵된 한약학과 전 학생회장 공금 개인적 사용 무혐의 판정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서울】 지난달 31일, 한약학과 투쟁지원금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감사에서 해당 지원금은 공금으로 판명됐지만, 남태욱(한약학 2022) 전 한약학과 학생회장의 사적 용도 사용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남 씨는 지난해 10월, 공금 횡령

의혹과 공문서위조 등에 따른 감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학생회장직에서 탄핵됐다.(한약학과 학생회장 탄핵, 회비 부정사용 의혹 발단/대학주보 1731호/2024.11.06.)

해당 감사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약대 행정실 주관으로 진행됐다. 감사는 당사자 면담, 거래내역서 및 회계자료 분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의 자문 과정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투쟁지원금은 한약학과 학생 전체를 위한 공공 목적의 '공금'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인 통장에서 관리된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하지만 사적 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남 씨의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투쟁지원금 또한 학생회 활동을 비롯해 전국한약학과학생협의회(전한협) 회의 및 행사, 국회 방문 등 대부분 공적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한약학과 학생회장의 투쟁지원금 사적 용도 사용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사진=대학주보 DB)

감사 이후 약학대학 SNS에는 '한약학과 투쟁지원금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가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공적 계좌 분리, 회계 투명성 확보, 공금 사용 내역 공유 등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한약학과 재학생 A 씨는 "공금 사용 내역은 당연히 공개해야 하며, 일반 학생도 이러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1. 진행 절차



2. 실습기간: 2025.06.23.(월) ~ 2025.08.31.(일)

3. 학생 참여기준

- 가. 현장실습 진행 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 나.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다. 졸업유예자 참여불가
- 라.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가능
- 마.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 가능

4. 학교 지원 사항

- 가.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보험 가입 및 사전교육 진행
- 나. 신규기관 현장점검 및 학생 대상 현장실습 운영 중간 점검
- 다. 학점 인정: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실습일수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5. 실습기관 지원사항

- 가.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참여학생 산재보험 가입 및 필요시설·물품 제공
- 다. 직무 관련 교육시간(10~25% 이하)을 제외하고 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6. 신청 방법 및 선발 일정

1차 학생 참여 신청 2025.04.024.(월) ~ 04. 18(금)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심사	학과별 학생 선발
1차	2025.04.07.(월)~ 2025.04.18.(금)	2025.04.24.(목)~ 2025.04.30.(수)	2025.05.07.(수)~ 2025.05.13.(화)	2025.06.10.(화)~ 2025.06.11.(수)
	2025.04.28.(월)~ 2025.05.12.(월)	2025.05.16.(금)~ 2025.05.22.(목)	2025.05.26.(월)~ 2025.05.30.(금)	

7. 신청방법: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실습기관 조회 후 신청

8. 문의처: E-mail. intern@khu.ac.kr, Tel. 서울C 02-961-2352, 국제C 031-201-3925
※ 2025-여름학기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

‘확률과 통계’ 자연계 핵심과목으로 고교학점제 반영한 ‘첫 사례’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지난 31일, 입학처가 2028학년도 자연 계열 분야의 고등학교 교과 이수 권장과목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고1 학생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함이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고1 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평가 방식도 바뀌었다. 내신 상대평가는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수능 체계 역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만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된다. 그에 따라 기존 수학 선택과목 미적분Ⅱ·기하, 과학 선택과목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이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문·이과’에 따라 나뉘었던 진학 계열별 학급시간표 역시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개인별 시간표로 바뀐다.

변화하는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대입 전형도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우리학교 입학처도 현재 대입전형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과목’을 개편했다.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과목’에는 필수 이수를 권장하는 ‘핵심과목’과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권장과목’이 있는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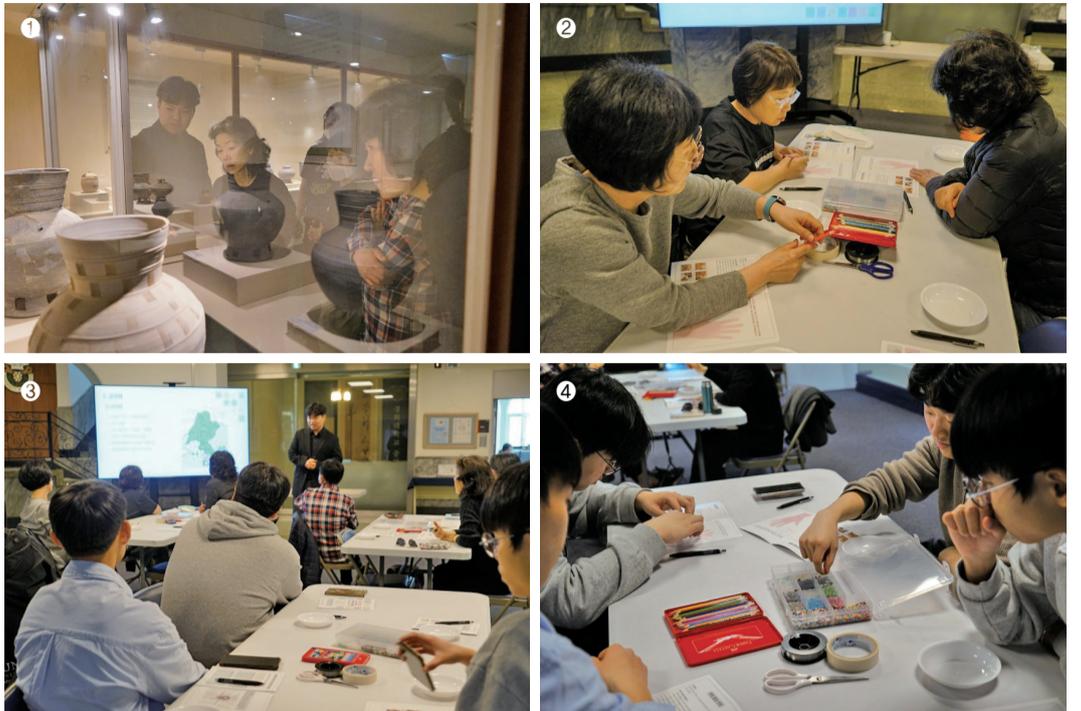
두 영역에 변화를 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학교 자연계는 수학 수능 출제 범위인 ‘확률과통계’를 모든 학문분야의 핵심과목으로 편성한다. 기존 확률과통계가 핵심과목이었던 분야는 ‘산업’, ‘화학’, ‘간호·보건’ 뿐이었지만, 개편에 따라 모든 학문분야 핵심과목이 된다. 과학 교과는 학문분야마다 상이하지만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세포와 물질대사’ 등이 새롭게 핵심과목과 권장과목으로 지정됐다.

우리학교 입학처는 국내대학 중 가장 먼저 권장과목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학전형팀 임진택 팀장은 “오는 5월부터 고1 학생의 2학년 선택과목 개설이 시작되기에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빠르게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주요 9개 대학 중 대부분의 대학은 핵심과목 지정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중앙대 입학처는 “권장과목을 발표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고 했으며 고려대 입학처는 “내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대, 고려대를 제외한 대학은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도입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문계열은 자연계열과 달리 권장과목을 두지 않는다. 학문 특성상 학습 단계가 뚜렷하지 않고, 자율/자유전공학부는 전공을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권장과목을 두지 않는다.

입학처는 의견수렴과 공동연구 이후 내년 4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① 관람객이 신라시대 유물을 보고 있다. ② 나만의 팔찌를 만들기 위해 도안을 짜고 있다. ③ 전시 관람에 앞서 고구려시대 역사 강연이 진행됐다. ④ 학생들은 팔찌를 만들기 위해 곡옥을 켜고 있다. (사진=김유경 기자)

삼국의 위엄 오늘의 취미가 되다 중앙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성료

김유경 기자 ghajis@khu.ac.kr

【서울】 지난 10일 중앙박물관에서 삼국시대 문화를 체험하는 ‘삼국시대, 위엄을 드러내다’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해 삼국시대 유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행사는 중앙박물관이 기획한 ‘슬기로운 취미생활 <대학 박물관편> - 옛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만의 취미 찾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중앙박물관 이수현 연구원은 “최대한 다양한 활동에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도슨트 등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순서인 ‘삼국시대, 위엄을 드러내다’ 프로그램에는 우리학교 학생과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 주민이 함께했다. 이들은 먼저 유물·유적을 통해 삼국시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물관 내부 전시실에서 관람객은 신라의 굽은고리 귀걸이와 백제의 세발토기를 살펴봤다. 전시실을 둘러본 장해욱 씨는 “옛날에 배웠던 것이 새롭고 재밌다”고 감상을 전했다. 한 관람객은 “고구려 시대 기와가 생각보다 많이 전시돼 있어서 놀라웠다”며 연화 귀면문 도당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체험 활동에서는 신라의 곡옥 목걸이에서 영감을 받은 팔찌 만들기가 진행됐다. 관람객은 마음에 드는 비즈를 골라 하나하나 우레탄 줄에 꿰었다. 좋아하는 색, 빛깔이 핀 붓의 모습, 역사적인 의미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 형형색색의 팔찌를 완성했다. 관람객 윤영문 씨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영감을 받아 구슬을 5개씩 4가지 색으로 꿰었다” 이어 “태야를 닮은 곡옥을 가운데에 꿰어 생명의 탄생을 나타냈다”고 자신이 만든 팔찌를 설명했다.

동대문구 내에서 삼국시대의 흔적을 찾아보는 활동도 있었다. 한 관람객은 “동대문구에서 유일한 삼국시대 유적을 찾아볼 수 있는 배방산 보루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지역에서 역사를 즐길만한 장소를 서로 제안하며 동대문구 지도에 표시하기도 했다.

관람객 허순례 씨는 “먼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다”며 감상을 전했다. 또 다른 관람객 김영랑 씨는 “박물관이 역사적 자료만 관람하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즐겁게 참여했다”고 만족을 표하기도 했다.

‘옛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만의 취미 찾기’는 삼국시대에 이어 오는 17일과 24일엔 각각 ‘고려시대, 향을 입다’와 ‘조선시대, 즐기며 구경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주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6 창간 70주년 특집 - 나는 주간교수다 ④

“징그러웠던 대학주보, 가슴 속 가장 오래 남은 젊음”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최상진(국어국문학) 1996~1999년 주간

창간 70주년을 맞아 대학주보는 역대 주간 교수를 만나 그들이 겪은 대학과 사회의 현실, 덜 다듬어진 학생기자들을 어루만져온 그 시간을 들여보았다. 네 번째 순서는 섹션 도입과 간지 창간 등 편집 혁신을 주도한 최상진 전 주간의 이야기다.

혼잡함과 자유로움 공존하던 곳 창의·도전의 바람이 불다

1996년 3월, 국어국문학과 최상진 교수에게 신문방송국장 제안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보직 교수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근심 어린 표정을 한 최 교수가 대학주보 편집실 문을 열었다.

“이게 쓰레기통이지, 사람 사는 데냐!” 문을 열고 마주한 편집실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양쪽으로 쌓인 신문 더미, 평평한 곳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든 널브러져 있던 원고지, 정리되지 않은 재떨이와 꾸역꾸역 천장을 매우고 있는 담배 연기까지.

대학의소리방송국(VOU) 공간을 보니 깨끗해서 더 기가 찼다. 44기 공광섭(토목공학 1995) 동문은 “국장실도 교수님 책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자가 사용했기 때문에 지저분했다”며 “마감일에는 국장실 소파나 바닥에서 잠도 많이 잤다”고 회상했다.

이렇듯 혼잡함과 자유로움이 공존했던 이 공간에서, 최 교수와 기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

섹션 도입과 제호 변경 가치와 정체성 새롭게 선언

회색조로 가득한 1면, 촌스러운 제호, 어딘가 과거에 머문 듯한 편집 방식까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아니, 혁신이 필요했다. 그렇게 대학신문 최초로 1면과 8면에 컬러면이 도입됐다. 컬러가 중앙일간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시절, 그 흐름을 대학 언론에 과감히 끌어들이는 것이다.

섹션 도입도 함께 추진됐다. 중구난방 배치되던 뉴스를 보도, 여론, 사회, 문화, 오피니언 등 명확한 구획을 설정해 독자들이 더 쉽게 내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문의 얼굴인 ‘제호’도 바꿨다. 대학주보가 나아갈 방향, 그 가치와 정체성을 새롭게 선언하는 일이었다.

기자들은 도발적으로 응수했다. 1997년 5월 12일, 대학주보 창간 42주년에 맞춰 ‘이왕 바꾸는 거, 제대로 흔들어 보자’는 듯, 이름부터 ‘프리스타일’인 간지를 창간했다. 기존 신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45기 김연의(무역학 1995) 동문이 상의를 탈의하고 얼굴 반쪽만 메이크업을 한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진을 창간호 표지로 장식했다.

45기 김동혁(생물학·신문방송학 1995) 동문은 “프리스타일의 핵심 키워드는 ‘실형 정신’이었다”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대학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프리스타일은 대학신문 최초로, 규정화된 본지 이외에 자유롭게 대학생 문화를 지면화 한 시도였다. 정해진 형식도, 정답도 없었다. 글보다 이미지가 먼저 말을 걸었고, 딱딱한 논조보다 대학생의 진짜 목소리가 중심이었다.

최 교수는 부총장실에 불러 갔던 하루를 소개했다. “지난번 나간 신문으로 또 한 소리 들겠구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한국일보 부사장이십니다.” 부총장이 조용히 소개했다. 그 인사는, 대학주보 한 부를 들고 있었다. “요즘 대학신문이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 짧은 찬사가 긴 시간 고민하고 흔들리던 최 교수의 마음에 단단한 울림을 남겼다. “우리가 맞게 가고 있다.”

늘 학생 편에 서던 주간 ‘지켜야 할 선’ 경계하기도

교박 1년이 지나, 새해가 밝았다. 신년호 1면엔 당연히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가 실릴 줄 알았다. 그런데 기자들이 들고 온 건 검은 바탕에 섬뜩한 해골이 그려진 사진 한 장이었다. 당황을 넘어 당황에 가까웠다. ‘다시 생각해보라’며 단박에 반대했지만, 기자들은 진지했고 그 안에 담긴 고민과 메시지 역시 가볍지 않았다.

결국 실리게 된 ‘기막힌 신년호’는 예상대로 교무회의에서도 화제였다. 새해 벽두부터 우중충한 1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그날, 최 교수가 당시 편집장이었던 44기 공광섭 동문을 밖으로 불렀다. “그래도 신년호인데 해골은 너무했다.”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단 한마디만 남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① “이런 거지같은 대학주보. 징그러운 대학주보.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최 교수의 ‘징그러움’의 말은 결국 ‘지독하게 정들었다’는 말이었다. (사진=김규연 기자) ② 1997년 1월 1일자 신문. 신년호에는 밝은 이미지가 아닌 섬뜩한 해골 사진이 자리했다. ③ 1997년 5월 12일자 신문. 45기 김연의 동문이 상의 탈의를 하고 얼굴 반쪽만 메이크업을 한 채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 창간호 표지였다. (사진=대학주보DB)

늘 학생들 편에 서 있던 그였지만, 학생의 ‘자유’와 ‘지켜야 할 선’ 사이에서 고민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늦은 밤 조판 막바지에 올라온 사설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해 타 대학신문이 쓴 도발적인 사설에 동조하는 글이었다. “이건 아니다. 이대로 내보내면 너희도, 나도 전부 잡혀간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학생들을 감싸던 방패가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이었다.

결국 신문 발행은 전면 중단됐다. 다음 날 아침, 편집실로 ‘신문이 왜 안 나왔냐’며 서울신문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1학년 수습기자가 ‘사설 문제로 신문이 나가지 못했다’는 말을 무심코 전하고 말았다. 발행조차 되지 않은 사설의

뒷이야기가 전국 일간지를 통해 퍼져나갔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나갔지만, 고뇌와 긴장 속에서 마음을 졸인 그 치열한 순간은 최 교수에게 지금까지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됐다.

‘동행’을 택한 주간 기자들과 한 시대 문을 열다

45기 김동혁 동문은 “함께 지내 보니, 털털하고 소박한 농부 같은 분이였다”고 그를 떠올렸다. 45기 강남이(물리학 1996) 동문은 “권위라는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항상 학생들 편에 서 계셨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기억 속 그는 ‘지도’보다는 ‘동행’을 택했던 사람이었다.

아이템 하나를 두고 밤새도록 이어진 편집 회의는 일상이었다. 기자

들이 본인들에게 ‘회의주의자’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다. 하지만 틀을 깨는 새로운 방식처럼 무엇이든 시도해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자들은 충분히 들렸다. 변화는 모두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최상진 전 주간은 퇴직 이후 진짜 농부가 되어 포도밭을 일구고 있다. “이런 거지같은 대학주보. 징그러운 대학주보.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징그러움’의 말은 결국 ‘지독하게 정들었다’는 말이었다. “젊은이는 약간의 반항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체제에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젊음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 징그러운 대학주보는 그래서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은 젊음이다. 그리고 그 젊음이 있었기에, 대학주보는 한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응답하라 1998...신문 그리고 청춘, 열아홉 살 47기의 기록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대학주보 47기

김낙연, 김주애, 류호명
서해동, 서효다, 윤보훈
이광호, 이승재, 채민선

#대학주보 47기(1998년도 신입생)는 개성 강하고 독특한 녀석들의 집합체였다. 9명 모두가 지지 않는 성격에, 각자 뚜렷한 색깔을 지녔고, 한자리에만 모이면 에너지가 폭발했다. 반항심도 세고 말투도 거칠어 선배들의 눈총을 사곤 했지만, 그 어느 기수보다 일을 제일 많이 해 어딘가 짝한 이들이었다. 기수별 전통인 '냉면그릇 의리주'를 마실 땐, 모두가 말술이라 걱정이 없었다. 98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대학신문 중 최대 면수인 52면을 발행한 것과 88올림픽에 버금갈 99 NGO올림픽이라는 찬사를 받은 '서울 NGO세계대회'의 일간지 발행이 모두 이들의 손에서 탄생했다. 기자 활동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시절의 열정으로, 대학주보 지면에 다시 그들을 초대한다.

그들, 면접부터 남달랐다

대학주보 70년 역사를 통틀어봐도, 신입기자 면접부터 47기는 남달랐다. 김주애(지리학)와 서해동(경계 경영학)의 기억 속 대학주보 면접은 필기고사, 정기자 면접, 부장단 면접뿐 아니라 대기공간에서도 OB선배들이 질문공세를 벌였고, '최종보스 면접' 같았던 국장방에 들어가니 최상진 교수(국문학)를 비롯한 간사, 조교들이 앉아서 '그 불쌍한 수습기자 한 명을 두고 일종의 압박 면접'을 하는 분위기였다. 윤보훈(생명자원과학부)은 VOU 원서를 내려 갔다 1층에서 우연히 만난 38기 오세윤 OB선배의 "여기가 더 좋다"는 말에 낚여 대학주보에 지원하게 됐다.

나이나 학번은 중요하지 않았다. 위계는 오직 '기수'로 정해졌고, 그 질서엔 절대복종이 원칙이었다. 그것이 47기가 처음 마주한 대학주보의 분위기였다. 동기 중에는 재수한 김낙연(섬유화학산업공학부)을 제외하고는 다 현역이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45기 선배가 46기 삼수한 선배보다 어렸는데도 거리낌 없이 말을 놓고 일을 시키는 대학주보만의 룰에 적응해야 했다. 신문 제작을 위해 개인 활동은 철저히



좌로부터 서해동, 김주애, 채민선, 이승재, 김낙연, 윤보훈, 류호명, 서효다 동문. 열아홉 청춘을 지독하게도 열정적으로 살아냈다.

(사진=류호명 동문 제공)

통제됐다. "집에 불이 나서 방 하나가 홀랑 다 탔다고 하는데요!" 김낙연이 다급하게 말하자 당시 편집장이던 45기 강남이(물리학 1996)가 "마감 안 하면 집에 못 간다"고 말했다. 김낙연은 원고를 다 마감하고 나서야 집으로 뛰어갈 수 있었다.

학업과 신문 병행, 어렵지 않았다

편집실은 기자들이 먹고 자는 '집'이었다. 매일 출근에, 합숙, 세미나, 기획 회의, 평가 등 1년 내내 함께 붙어있는 것이 일상이었다. "학업과 신문 제작 병행이 어렵지 않았느냐고? 어렵지 않았다. 학업을 안 했으니까." 47기 9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다. 이광호(자연과학부)는 "학점 3.0 근처만 되면 무조건 기수 중 1등을 차지했고, 대부분이 1~2 점대였다"고 증명했다. 그마저도 선배들은 학사 경고도 많이 받던 시절이었다고도 덧붙였다. 9명 모두 현역 기자 생활이 끝난 후 계절학기나 남은 학기를 이용해 그 많은 학점을 겨우 채워 졸업했다.

당시 기자들의 일주일은 빠르게 흘러갔다. 월요일은 수원과 회기에서 격주로 편집 회의가 있었고 끝나면 술을 먹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취재가 주된 일과였고, 그 끝은 역시 음주였다. 금요일 밤에 시작한 원고마감은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주간지에서 사진을 찾는 등 다음 날 조판을 준비했다. 대망의 토요일, 이른 오전 조판소로 향해 다음날인 일요일 새벽 2~3시

까지 조판을 이어갔다. 이승재(서양학부)는 "조판이 하도 늦게 끝나니까 편집장이 바뀔 때마다 목표가 '조판 시간을 앞당기겠습니다', '조판을 자정 전에는 끝내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기자들은 조판이 끝나면 일요일 오전까지 또 술을 먹었다. 류호명(생명자원과학부)은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일요일 일요일밤에> 예능 프로가 방송되는 저녁 6시쯤 일어나는 게 루틴이었다"고 말했다. 저녁에 일어난 기자들은 학교로 가서 단과대별로 신문을 배포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시러 갔다. 47기들의 일주일은 조판과 술이 뒤섞인, 그 자체로 하나의 리듬을 이룬 생활이었다.

당시 서울캠은 신문 배포를 도와주는 직원이 있었지만, 국제캠은 기자들이 직접 신문 배포를 해야 했다. 총학생회 선거를 두고 말이 많은 상황이라 "학생들이 보면 안 될 기사가 나올 것 같으니 신문을 없애자"는 소문이 돌았던 모양이었다. "누군가 신문을 가져가면 넌 그걸 찍어" 신문 배포대를 사수하며 '보초' 역할을 자처한 김주애가 김낙연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정말로 신문을 가져가려는 일당이 나타났고 이걸 몰래 찍으려던 김낙연이 실수로 플래시를 터뜨리고 말았다. 걸린 거였다. 사진기를 꼭 움켜쥔 김낙연이 그 길로 재빠르게 도망갔다.

일 복이 터졌다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무려 '52

면' 특집호를 제작한다고 했다. 당시 대학신문 중 한양대의 최대면수가 40면이었는데 이를 뛰어넘는 엄청난 작업이었다. 현역 기자뿐만 아니라 OB와 조교, 간사가 모두 동참해서 기획부터 발행까지 책임을 졌다. 기획만 자그마치 한 달, 조판은 삼일이 걸렸다. 모두가 집에 가지 못하고 신문에만 매달려 고생했던 경험이었다. 이승재는 "총동문회장을 인터뷰하는 면이 있었는데 조판 시기에 돌아가셔서 다른 인물로 대체한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황당했던 비화를 전했다.

1999년 10월, 체조경기장 내에서 '서울 NGO 세계대회'가 우리학교와 중앙일보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당시 주간이었던 최 교수가 대회 기간 동안 일간지를 만들자고 기자들에게 얘기하자 "뭐 이딴 걸 만드냐"고 난리가 났다. 이번에는 아예 단체 수업결강 협조전을 만들어, 학생 기자들에게 '학교에 가지 말고 올림픽공원으로 출근하라'는 지령이 떨어졌다. 김주애는 "학생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니, 이게 뭐 소리인가 싶었다"고 그날을 떠올렸다. 일주일 정도의 대회 기간 동안 취재팀과 편집팀이 밤을 새며 일간지 'NGO 데일리'를 만들어냈다. 서해동이 흑인 백인 황인종 3명이 대화하는 모습을 포착해 1면에 올리면서 47기의 활약이 돋보이기도 했다.

믿기지 않는 열정이었다

설악산으로 떠난 3학년 여름 세

미나 중, 조교는 편집장 이승재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다. "너,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은 작고하신 아버지 이용호 선생이 퇴직을 앞두고 신문방송국 행정실장 자리에 돌아온 것이 화근이었다. 사실 김주애는 3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다. 세미나도 마지막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조교 선생님이 설악산 밑에서 커다란 수박을 공수해 왔다. "주애야, 너 먹이러 사 온 거야." 그렇게 김주애의 은퇴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됐고 2학기 편집장은 그가 되었다.

대학주보를 거쳐간 이들은 하나 같이 "자기 현역 시절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고된 인원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시절을 얼마나 뜨겁게 보냈는가에 따라 갈리는 것이었다.

47기.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겉으로 덤앤더머 같고, "채네 머리 비었다"는 소리도 종종 들었지만, 막상 일이 주어지면 그 누구보다 성실했다. 기사 하나 빠질 땐 "그럼 네 얼굴 지면에 크게 나간다?"는 농담이 오갔고, 그 말이 때론 실제보다 더 큰 압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다행히, 진짜 얼굴이 실린 적은 없었다. 결국 다 해냈고, 마감은 지켰으며, 신문은 매주 나왔고, 조판은 무사히 끝났다. "지금 누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요?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열정이었다.

8 기획



'GS리테일MD전문가과정' 강좌에서 GS리테일 실무자에게 선정된 제품을 기획한 학생이 개발 과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환희 기자)

실전형 취업 수업, 학생 경쟁력 키운다

리테일 · 금융 전문 강화, 학생 반응도 좋아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 ① 높아진 코로나학번 취업 문턱
- ② 우리학교 취업프로그램
- ③ 직접 찾아가본 취 · 창업스쿨

지난 회차에서는 미래인재센터에서 어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번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현장을 살펴보고 학생 목소리를 들어봤다. 28개 취 · 창업스쿨 강좌 중 기업과의 MOU를 체결한 'GS리테일 MD전문가과정'과 학생 강의평 만점인 '금융권취업전략' 강의를 찾았다. 또한 서류 · 면접 실전 준비반 'JSC' 현장도 찾았다.

GS리테일 MD전문가과정 수강이 곧 취업 경쟁력으로

우리학교는 2023년 7월, 삼양식품과 산학협력을 맺어 취업스쿨 '삼양식품글로벌전문가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학기에는 GS리테일이 전문가과정 강화를 진행 중이다.

'GS리테일MD전문가과정' 강좌가 열린 네오관 강의실을 찾았다. 교단에는 교수가 아닌 현직 GS리테일 MD가 서 있었다.

강좌를 담당하는 GS리테일 정구민 매니저는 학생 상품 기획의 좋은 점, 기획이 실제 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본사에서 동료 실무자들에게 학생이 기획한 제품의 평가를 받아온 것이다.

정 매니저는 "저희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제약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학생은 그렇지 않아서 재밌어요"라고 말했다. "요즘 젊은 층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실무자는 잘 모르는데, 학생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정 매니저는 학생이 발표했던 '슈라면' 기획안을 보여줬다. 어린 시절 즐겨 했던 플래시게임 '슈의 라면'에서 착안해 신제품을 기획한 아이디어다. "저는 이런 게임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학생에게 이런 신선함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수강생 36명 중 상위 10명은 GS리테일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신지예(아동가족학 2019) 씨는 "기업 현직자가 지속적인 피드백과 멘토링을 해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20분이 지났지만, 학생은 강의실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주에 있을 상품 기획 제안서 모의 발표를 위해 조원과 의견을 나누기에 바빴다. 김현지(Hospitality경영학 2022) 씨는 "MD는 수많은 기획안 중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피드백 받고, 기획의 성과를 경험하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취업전략 강좌 금융권 자소서 1:1 피드백

'금융권취업전략' 강좌에서는 전문성이 돋보였다. 금융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발표하고, 강좌를 맡은 조창오 교수가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과 첨삭을 해줬다. 조 교수는 금융권 현직에 8년 정도 몸담았던 경험이 있다.

"이 부분은 네 경험을 더 드러내는 식으로 고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 그래도 저번보다 훨씬 나은 글이 됐네." 조 교수의 피드백을 받은 학생은 빠르게 수긍하고 자신이 어떤 이유로 썼는지와 궁금한 점을 물었다.

학생들은 강좌가 굉장히 실전적

이고 금융권에 특화돼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백시현(경제학 2021) 씨는 "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수업인데, 그런 만큼 교수님께서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알려 주신다"며 "패스·논패스 과목이라 시험 부담도 적어 알차게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박예진(원예생명공학 2020) 씨는 네트워크 형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금융권에 도전하는 고학번이 모여있으니 이 안에서 스테디도 꾸려서 하고 있다"며 "같이 준비하는 사람과 같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직자와의 연결도 유지돼 현직자 초청 강연도 수업 중에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접에서 진심을 드러내라" 실전 전략 세우는 데 큰 도움

서류 면접 실전 준비반 'JSC'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중점으로 준비하는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으로, 미래인재센터 김준완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강의실에서는 실전 면접의 구체적인 조언이 이뤄졌다. 김 교수는 "질문을 끝까지 듣고, 차분히 하나씩

나눠서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착하게 대답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으로 ▲지원 동기 ▲핵심 역량 ▲자신의 강점 등을 꼽으며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태도도 꼬집었다. "면접관 사이에서 '재는 왜 눈을 못 봐?'라는 말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눈을 피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진솔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김 교수는 직접 눈을 보기가 어렵다면 이마나 코 근처에 시선을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복장과 머리에 대한 세세한 조언도 있었다. "남학생이 재킷 없이 면접장에 오는 건 썩습니다. 옷은 같아도 재킷 하나만 걸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학생에게는 "머리를 너무 강하게 묶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정돈하는 게 좋다"며 과도한 스타일링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결국 '진심은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패션MD 준비생이 패션잡지 『보그』를 꾸준히 읽은 학생 사례를 언급하며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질문이 꼬리를 물어도 막힘이 없는데, 그게 합격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해당 강좌를 수강 중인 김유진(경영학 2021) 씨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면접장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생생하다"며 "합격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어 구체적인 면접 준비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구부, 산뜻한 3연승...목표는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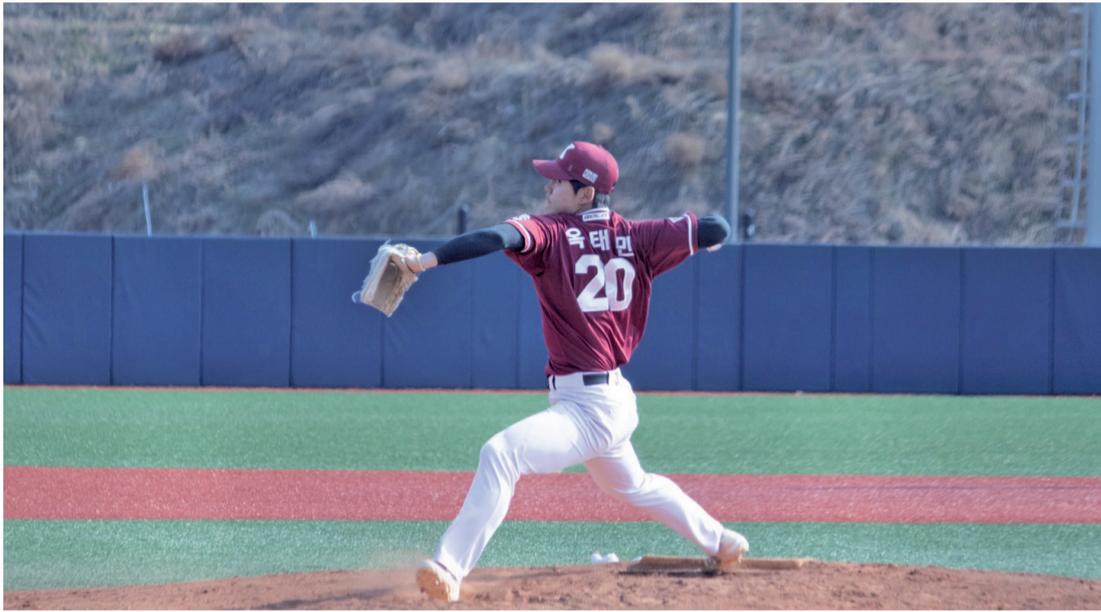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지난달 27일, '2025 KUSF 대학야구 U-리그'가 개막됐다. 야구부는 개막전에 서울대를 상대로 콜드승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3연승을 질주 중이다. 몇 해간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우리학교 야구부지만, 3연승으로 25년도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다.

지난 3일, 강원도 원주 태장공원 야구장에서 열린 시즌 첫 경기에서 서울대에 5회 17-1 콜드승을 거뒀다.

이날 주목할 선수는 선발투수 옥태민(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였다. 옥 선수는 1회 말부터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으며, 3회까지 상대 팀 타자들에게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다.

다음날 같은 곳에서 열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제주관광대를 9-4로 제압했다. 우리학교는 2회 선취 2점을 내며 앞서갔지만, 4회 2-3으로 역전당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



지난 3일, 야구 개막전의 선발투수였던 옥 선수는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다.

(사진=야구부 프런트 제공)

러나 5회부터 8회까지 매 이닝 득점하며 9-4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이날 역전의 선봉장에는 5타수 4안타를 기록한 고민재(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가 있었다.

시즌 세 번째 경기에서는 경민대

를 11-0으로 물리치며 다시 한번 5회 콜드승을 거뒀다. 이날 선발투수 김태형(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는 5이닝 동안 단 4개의 피안타를 허용했다. 타선에서는 박효성(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가 안타 한 개와 2

개의 볼넷을 골라내며 활약했다.

개막전 승리를 이끈 옥 선수는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만 하자는 생각으로 공을 던졌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도망가기보다 '타자랑 싸우자'는 생각으로 입

혔던 것 같다"고 말했다. 팀의 연승 비결로 "선수들이 평소에 하던 루틴을 잘 지키고,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몸 관리를 잘해주신 덕분에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에 임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번 대학야구 U-리그에는 전국 51개 야구부가 참가했다. 참가팀은 5개의 조로 나뉘어, 조별 예선을 거쳐 각 조 상위 5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왕중왕전에서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챔피언을 가린다. 우리학교는 강릉영동대, 건국대, 경민대, 서울대, 신안산대, 여주대, 연세대, 제주관광대, 한국골프대와 함께 B조에 속했다.

옥 선수는 "이번 시즌에서 개인적으로는 마운드에서 제 공을 자신 있게 던지며 기회를 잡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팀 목표는 조 1위로 왕중왕전에 진출해 우승하는 것"이라고 올 시즌 목표를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오는 17일 한국골프대와 경기를 앞두고 있다.

'철인' 최태원, 야구부의 새출발 이끈다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야구부 최태원(체육학 1989) 감독

최태원(체육학 1989) 감독은 프로야구에서 '철인'으로 통하던 선수였다.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전주를 연고로 하던 쌍방울 레이더스 프로야구팀에 입단한 뒤 10년간 프로생활을 하며 1,009경기 연속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1997년에는 포지션 별로 당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하는 골든글러브 2루수 부문을 수상했다. 은퇴 후 2005년부터 17년 동안 프로야구단 코치 생활을 이어가다, 2023년 모교의 감독으로 다시 돌아왔다.

야구부의 올해 시작은 산뜻했다. 서울대를 만난 개막전에서 5회 만에 경기를 끝내버렸다. 최 감독은 "다행히 방심하지 않고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어 "옥태민(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가 최근 2년간 부상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날 마운드에서 차분하게 선발 역할을 잘 소화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비록 초반이지만, 투타 전반에서



최 감독은 "팀의 승리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야구부 프런트 제공)

고른 활약을 보이는 가운데, 야구부가 시즌 전 가장 집중할 부분은 '체력 보강, 수비 강화, 팀워크와 팀배팅, 그리고 정신적 측면'이었다. 최 감독은 특히 팀워크를 강조했다. "선수는 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즌이 시작하고 3연승을 달린 만큼, 팀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최 감독은 파이팅 넘치는 선수들의 모습, 팀원 간 사이가 돈독한 점을 우리학교 야구부의 차별점으로 언급했다.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다."

시즌 초반 연승 비결로 "한 경기 한 경기 이기고자 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팀을 위해 뭐라도 하려는 생각이 하나둘씩 모여 좋은 시너지를 냈다는 것이다.

최 감독은 3연승의 주역으로 고민재(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를 꼽았다. 고 선수는 지난해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비시즌 준비를 철저히 한 탓인지, 수비와 타격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제주관광대와 경기에서 5타수 4안타로 맹활약했다. 최 감독은 "작년 가을부터 비시즌 동안 수비에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선수 모두 전투력이 향상된 것 같고,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도 좋아 보인다"며 "25학번 신입생 8명, 편입생 2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있고, 바로 시합을 뛰는 선수도 몇몇 있다"며 선수들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감독은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야구 선수는 가족보다 동료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 최 감독은 "서로 간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팀워크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감독과 야구부 선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올 시즌 목표는 우승이다. 최 감독은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10 사람



박 작가는 사람마다 '웹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어 "사람마다 '웹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의 소리'나 '놓지마 정신줄'같은 작품이 생각나는데,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웹툰' 하면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권도연 기자)

에 매일 최선을 다했다. 좁은 방 안에서 휴일 없이 작업했다. "작업실 차리기 전에는 방에 갇혀서 계속 혼자 일하니까 정신적으로 지쳤던 것 같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 맞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죠." 현재 박 작가는 지인 작가 두 명과 작업실을 차려 상황이 나아졌다.

휴식 없는 연재 사이클이 이어지며 슬럼프도 찾아왔다. 박 작가는 "사람이 아무리 놀아도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하게 되는 것 같아요"라며 "그래도 계약서 썼는데 일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슬럼프에서 탈출한 것 같아요"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박 작가는 학부 시절 배운 한국화 특징을 작화에 반영했다. '내 여자친구는' 등장인물 피부는 모두 회색 빛이 도는 것이 특징인데, 박 작가는 이를 두고 전공인 한국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한국화에서는 먹을 많이 쓰다 보니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평소 작화를 보면 색이 탁하게 표현됐다"며 "교수님들께서 전공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재료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경험이 웹툰 연재하는 데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을 위한 여정 시작 '웹툰의 대명사' 되고파

데뷔작인 '내 여자친구는'은 네이버 웹툰 '스릴러 장르 TOP 20'에 선정되며 연재를 마쳤다. 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작품을 '관심 작품'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박 작가에게는 20만이라는 수치보다도 누군가 작품을 즐겁게 봤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게 다가왔다.

박 작가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숫자라서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라며 "그냥 그 수가 크다는 것만 알고 저랑 관련된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제 상상을 누군가 즐겁게 봤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격스럽고, 앞으로 '보다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박 작가의 최종 목표는 '웹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마다 '웹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의 소리'나 '놓지마 정신줄'같은 작품이 생각나는데,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웹툰' 하면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끈기와 열정으로 성공적인 데뷔작 연재를 마친 '박씨'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을 네이버 웹툰 상단에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

첫 연재부터 네이버 스릴러 부문 TOP 20 최종 목표 "웹툰 하면 떠오르는 사람"

(내 여자친구는)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박성민(한국화 2019) 웹툰 작가

#지난해 네이버 웹툰에서 작가명 '박씨'로 데뷔한 박성민(한국화 2019) 동문이 1년간의 첫 연재를 마쳤다. 데뷔작임에도 장르별 순위권 진입과 즐겨찾기 20만 명의 성과를 이룬 박성민 작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4년의 준비 기간 홀로 걸어온 데뷔의 길

미술대학에 입학한 박 작가는 신입생 때부터 진로를 고민했다. 의외로 주변엔 미술 전공만 살리는 사람은 드물었다. 전공과 함께 다른 분야를 곁들이는 사람이 많았다. 한국화를 전공한 박 작가도 한 분야만을 고집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막연하게 바라왔던 진로인 만화가를 떠올렸다. 곧바로 그는 웹툰 작가로의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휴학을 신청했다. 웹툰 작가 데뷔에 매진하기 위함이었다. 종일 스토리를 구상하고 그림을 그렸다. 이런 일상이 매일 이어졌다. 꿈을 위한 길이었기에 지치진 않았다. 그러나 비슷한 일상을 공유할 누군가가 없는 것이 외롭게 느껴졌다.

그렇게 4년을 홀로 묵묵히 보냈다. 그는 "저 혼자서 전공과는 다른 분야로 빠지다 보니까, 주변에 저와 비슷한 경계에 있거나 조언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점이 힘들었어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던 2022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네이버웹툰이 공동 주최하는 공모전 '네이버웹툰 최강자전'에 참가했다. 이미 두 번의 공모전에서 낙선했던 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역시나 당선작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3개월 뒤 네이버 측에서 연락이 왔다. 공모작이었던 '내 여자친구는'으로 연재 제의가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웹툰 작가에 데뷔했다. 박 작가는 "데뷔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시도했는데, 그러다가 최강자전을 통해서 연재

기회를 얻은 것"이라 말했다.

자신에게 맞는 '스릴러'로 선회 매체 충격적 서사로 독자 확보해

최강자전 이후 네이버로부터 연락 받은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박 작가는 공모전에서 낙선할 때마다 그 이유를 분석했다. "그림체가 기분 나쁘다",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어."

그 결과로 박 작가가 '스릴러'가 나한테 맞는 장르다"라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작화가 스릴러 장르에 적합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웹툰 시장에 스릴러 작품이 드물었던 점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내 여자친구는'도 스릴러 장르다.

최강자전은 매 회차 투표를 통해 상위 라운드 진출작을 선출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연출했다. 매 회차 충격적인 서사를 포함해 어떻게든 대중의 마음을 낚아채도록 한 것이다. 일례로 첫 화에서 주인공 '지오'

는 자신의 여자친구 '미호'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목격한다. '내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괴물'이라는 핵심 설정을 드러낸 것이다. 박 작가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며 "어떻게든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일단 뽀뽀하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저지르고 수습했다"고 밝혔다. 작품 결말 또한 연재 내내 정해진 것이 없었다.

박 작가의 전략은 통했다. 당선작은 되지 못했어도, 네이버는 작품을 눈여겨봤다. 박 작가는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도전이다'하면서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메일함을 보니까 네이버에서 메일이 와 있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수상 외 연락이 있다고 소문으로 듣긴 했는데, 제가 직접 그걸 경험하니까 '이게 뻤다고?' 하면서 놀라웠죠."

일주일 온전히 바치며 작업 학교서 배운 점도 활용해

오랜 시간 준비해 이룬 꿈이었기

사설

의대생 꿈수 복귀, 학칙 엄정하게 적용해야

우리학교 의대생 전원이 복귀했지만, '등록 후 수업 거부'라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 전원이 복학 신청서를 제출하며 형식적으로는 학교로 돌아왔지만, 실제 강의실에 모습을 드러낸 학생은 극히 일부다. 우리학교 의대 행정실은 강의 미수강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른 유급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그 말이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제는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학칙에 근거한 단호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집단 휴학을 감행했던 의대생이 복학 마감 시한을 앞두고 대부분 복귀하면서, 당초 우려됐던 대규모 제적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행정적 '복귀'가 곧 교육의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학교 예과, 본과 모두 수강신청률은 약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단순

한 등록 행위만으로는 복귀로 간주할 수 없으며, 실제 수업 참여와 학점 이수를 통해서만 정상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의 강의 참여가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는 단순한 학내 문제가 아니라 의료 공백을 야기하는 국가적 문제로 번진다. 현재도 전국의 수많은 응급실과 전공의 수련 과정은 구조적으로 마비된 상태다. 복귀한 의대생마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의사 양성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리적 책임이다. 의사는 생명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정점에서 있다. 이러한 직업을 선택한 이들이 교육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학업 거부가 아니라, 장차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의

“
‘복귀’는 수업을 통해서만 완성되며, 그 안에서만 의사의 책임과 신념이 자란다

료 윤리 강령은 의사의 책무로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철저히 수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수업을 거부하고 실습을 방기하는 이유가 외압이든 본인의 선택이든, 현재의 행태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귀 의대생은 조속히 강의실로

복귀해야 한다. 특히 그간 우리학교는 지난해 유급 조치를 철회하며 사실상 의대생에게 학칙의 예외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연세대는 미수강 학생에게 유급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더는 '등록만 한 복귀'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중시해야 할 이들이, 지금 그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복귀'는 수업을 통해서만 완성되며, 그 안에서만 의사의 책임과 신념이 자란다. 여론은 의대생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 미복귀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다. 이미 충분한 인내를 보여줬다. 이제는 학생이 그 신뢰에 답할 차례다.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며 열심히 공부했던 본인의 청소년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초심을 잡길 바란다.

세시봉

끝이 아닌 시작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길고도 답답한 4개월이었지만, 이는 결코 끝이 아니다. 파면 당사자와 그 주변에 있던 책임자들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죄로 고발된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내란 방조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높은 기관의 법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이 장면을 바라보며, 한 시민으로서, 학생으로서 질문하게 된다. 법은 정말 모두에게 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현실은 법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 문제, '내 편이 잘 했고, 네 편이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다. 정의와 책임,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다. 지금 상황이 잘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도, 사법 시스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 지금, 모든 책임자는 법 앞에 서야 한다. 수사기관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검 또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정권 교체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을 위협한 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된 선례로 남아 또 다른 권력자에게 면죄부가 될 뿐이다.

파면이라는 큰 산을 넘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사람들과, 이를 가능케 한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같은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 없이는 정의도, 민주주의도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이번 계엄은 국민이 막아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추운 날씨에도 은박지를 뒤집어쓴 키세스 시위대와 유쾌한 문구가 적힌 깃발이 펄럭이던 시위를 기억한다. 국민이 힘쓴 만큼 이전 법이 그들을 심판할 때다.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발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한 번 지켜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내야 할 약속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자유전공학부 중운위 참여 문제

융통성있는 학칙개정 필요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신설 학부인 자유전공학부 학생회가 결국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로 인준되지 못했다. 학칙에 따른 결정임은 이해하지만, 단과대 단위 학부가 주요 의결 기구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못 가지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총학도 이를 고려해 자유전공학부 측을 배려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제9차 중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총학생회 측에서 “자유전공학부에 의결권은 없더라도 참석권 정도만 부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안과 관련해 일부 중운위원은 “중운위 회의에 와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절반 이상일 것 같다”며, “학교생활을 해본 재학생은 회의 내용 파악이 가능하지만, 신입생 입장에선 파악이 가

능할 것 같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자치 참여의 한계와 이해도를 단정하는 것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내년에도 자유전공학부가 중운위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유전공학부 특성상 2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타 전공으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제13차 중운위 회의에서 “내년도 중운위를 통해 자유전공학부를 예외로 두는 세칙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가 중운위 회의에 참관조차 못 하는 것은 사실이며, 결국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무엇보다 올바른 절차로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칙을 존중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 자치 실현 의지를 바탕으로 자유전공학부 1대 학생회가 마련된 이상, 문제 해결을 내년으로 넘기기보다 중운위 회의 참석권 부여 등의 방안이 조속하게 마련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만평 자유전공학부의 목소리가 축소될까 우려스럽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

이수병 50년의 질문... 멈춘 새벽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1975년 4월 9일, 유신 정권의 폭력 아래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故 이수병(정치외교학 1958) 선생. 그로부터 꼭 50년이 지난 5일, 정경대학 한 강의실에서 이수병 선생의 삶을 기리는 50주기 추모식과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현장에는 유가족, 동문, 추모 연대 인사들이 참석했다. 고인을 기리는 축사를 시작으로 생전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 상영과 '고령(苦嶺) 이수병 장학금' 수여식, 민주평화동산 현화가 이어졌다. 행사가 열린 정경대 303호 강의실에는 '고령 이수병 강의실'이라는 이름의 현판이 새롭게 걸렸다. 고령의 헌신을 잊지 않고 높은 뜻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진정한 지식이 강력한 무기”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배후로 체포돼

이 선생과 우리학교의 인연은 1958년 정치외교학과에서 시작됐다. 이 선생은 진정한 지식이란 사회를 변혁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다. 모든 신문을 낱자별로 정리해가며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실천의 길을 고민했다.

이 선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온화한 인물로 기억된다. 박중기 전 이수병 추모연대 의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허’ 웃으며 넘기던 따뜻한 사람”이라며 “심욕을 좇지 않고 사람 자체를 좋아했다”고 회고했다.

1960년 4월,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이 선생을 행동으로 이끌었다. 전국으로 번진 4월 항쟁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이후에는 민족통일운동에 헌신하며 연대의 가치를 설파했다.

하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들어서자 이 선생은 점차 감시 대상이 됐다. 사회운동과 평화통일 운동에 힘쓰던 그는 1974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민정학련’ 사건과 함께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사법 살인’의 새벽 언론통제로 진실 규명 늦어

이 선생은 고문과 강압 수사 속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 법정에서는 제대로 된 항변 기회를 얻지 못했



① 이 선생이 살아있던 삶의 궤적은 지금도 법과 권력,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사진 출처=4.9인혁재단) ② 지난 5일, 정경대 303호 강의실에는 '고령 이수병 강의실'이라는 이름의 현판이 새롭게 걸렸다. ③ 경희평화민주동산 개나리 꽃 사이 이 선생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하시언 기자)

다. 그렇게 이 선생을 포함한 8명에게 사형이 확정됐고, 이들은 대법원 판결 하루 뒤인 1975년 4월 9일 새벽,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선생은 당시 38세였다. 유신 정권 하 국가 권력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장이 완전히 무시된 ‘사법 살인’이었다.

이 선생의 부인 이정숙 여사는 남편이 처형당한 이후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았다. 이 여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교회 같은 곳에 가서라도 진실을 외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아픔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고 전했다. “자식을 보더니 ‘아휴, 많이 컸다’라는 한마디만 하고, 곧바로 간수한테 끌려갔죠. 그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32년 만의 무죄 고령의 뜻 이어져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에게 당시 심경을 묻자 그녀는 “반반이예요”라고 했다. “사람을 그렇게 죽

여놓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령 이수병 장학금’은 2009년부터 선생의 국가배상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유족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올해까지 총 64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 고령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50년 전 멈춘 새벽의 시간 오늘날에도 이어져

2025년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이 선생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반세기가 흘렀지만, 여전히 당시 국가 폭력의

그림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 진실이 은폐되고 법의 이름으로 생명이 박탈되었던 그 새벽은 역사로만 남지 않았다.

고령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원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보여준 인물이다. 그가 살아있던 삶의 궤적은 지금도 법과 권력,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50년 전 멈춘 듯했던 그 새벽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이수병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억 속에 살아 있다.